

보도시점 2024.11.22.(금) 15:00 배포 2024.11.22.(금) 13:00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 독려

-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 개최하여 공공기관들의 혁신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분야별 우수사례 공유·확산 유도

기획재정부는 11.22일(금) 13시, 수출입은행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유대회는 8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약 180명이 참석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지난 2년간 혁신 추진성과를 살펴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①생산성 제고\*, ②자율과 책임\*\*, ③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라는 3대 과제를 추진해왔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조직·인력을 효율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확산을 유도하여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등 변화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했다.

\* 혁신계획 이행실적('23년말): 공공기관 정원 △11,374명 조정, 경상경비 1.5조원 감축, 불요불급 자산 2.6조원 매각, 과도한 복리후생 478건 개선

직무급 도입기관: ('21) 35 → ('22) 55 → ('23) 109개

\*\* 기관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기관(26개)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 중소기업 기술마켓 구매실적: ('21) 892 → ('22) 1,579 → ('23) 2,206억원  
부동산·보건의료·금융 등 공공데이터 1,178건을 민간이 활용하도록 개방

다만, ‘아직 국민의 기대에 부족한 부분이 많은 바 미진한 부분은 더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를 위해 ①지난 '22년 수립된 혁신계획의 차질없는 마무리, ②직무 중심의 인사·조직관리 체계 확립, ③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근무환경 조성, ④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노력을 강조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완희 교수(가천대, 전(前)경영평가단장)는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창의적 혁신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공공기관들은 주제별 혁신추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❶조직·인력 효율화, ❷복리후생 개선, ❸대국민서비스 개선, ❹공공 데이터 개방 및 활용, ❺직무중심 조직·인사·보수 운영, ❻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등 6개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그간 기관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공유하였다.

#### <우수사례 발표기관 및 주요내용>

주제	발표기관 및 주요내용
조직·인력 효율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와 합동 혁신전담반(TF)을 운영하여 공동 기능조정안 마련 (스포츠센터·골프장 등 민간·지자체 이관 추진 등)</li> </ul>
복리후생 개선노력	(공무원연금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복리후생제도 구축 (사내대출 규정 정비, 창립기념일 유급휴가 폐지 등)</li> </ul>
대국민서비스 개선	(우체국물류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 우편물류 서비스 개선 지속 추진 (해외김치 항공운송 서비스 확대, 소포우편물 손해배상 프로세스 개선)</li> </ul>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로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민간 혁신 창업 지원</li> </ul>
직무중심 조직·인사·보수	(한국남부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직원 직무급 도입 및 직무중심 조직문화·인사제도 정착</li> </ul>
중소기업 기술마켓	(한국도로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해 기관 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전파하고, 신규 참여기관 정착 기여</li> </ul>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혁신성과를 서로 공유·확산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개선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유정 (044-215-5510)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주무관	이희한 (Lihan423@korea.kr) 권기환 (kkhpark@korea.kr) 박주현 (zoopark@korea.kr) 전광호 (khjeon21@korea.kr) 원지영 (yuj423@korea.kr)
	공공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준철 (044-215-5530)
		담당자	사무관	이상용 (alilac@korea.kr)
	인재경영과	책임자	과 장	김도영 (044-215-5570)
		담당자	사무관	정효상 (jeongx@korea.kr)
	공공혁신기획과	책임자	과 장	조영욱 (044-215-5610)
		담당자	사무관	이주호 (juholee14@korea.kr)
			사무관	최성진 (csj3939@korea.kr)
			사무관	남수경 (nsg116@korea.kr)
			사무관	김세웅 (swoong96@korea.kr)
	경영관리과	책임자	과 장	양재영 (044-215-5650)
		담당자	사무관	신동호 (rain0136@korea.kr)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참고 1

##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 개요

- **[일시]** '24.11.22일(금), 13:00~15:00 (120분)
- **[장소]** 서울 수출입은행 본점(여의도) 6층 대강당
- **[주제]** 공공기관 혁신 추진성과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

### < 혁신성과 공유대회 구성 >

시 간	주요 내용
13:00~13:05	· 인사말
13:05~13:10	· 동영상
13:10~13:20	· 정책설명 I (일·가정 양립 제도개선 추진현황)
13:20~13:40	· 혁신 우수사례 발표 I - ①기능·조직·인력 효율화, ②복리후생 개선 노력
13:40~13:55	· 주제발표(예: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제언)
13:55~14:15	· 혁신 우수사례 발표 II - ①대국민서비스 개선 사례, ②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사례
14:15~14:30	· 정책설명 II(직무 중심 조직·인사·보수관리 추진방향)
14:30~14:50	· 혁신 우수사례 발표 II - ①직무중심 조직·인사·보수 운영사례, ②중소기업기술마켓 확대 노력성과
14:50~15:00	· 질의 및 응답

##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윤상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에 참석해 주신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공기관 혁신을 성실히 이행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그간의 성과와 미진한 점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2 공공기관 혁신 성과

지난 2년간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sup>①</sup>생산성 제고, <sup>②</sup>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sup>③</sup>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라는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22년말 마련한 혁신계획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고,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수체제 확산 등을 유도하여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과  
과학기술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 (정원)50→300명 이상, (수입액)30→200억원 이상, (자산)10→30억원 이상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기술·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공공기관과 민간 간 장벽을 낮추는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혁신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잘 해왔던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 3 공공기관의 당면 과제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계획된 혁신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진도가 더딘  
자산효율화와 복리후생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보유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직무 중심의 인사·조직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보수체제를 넘어 인사·조직관리 전반이  
직무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연공성을 타파하고,  
성과와 전문성 중심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들이 직장가정에서 균형을 이루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도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공공기관이 일·가정 양립의 모범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고도화에  
각 기관이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 수능 응시원서 작성절차 온라인화, 교육기부 확대 등  
대국민서비스 개선과제 선정·시행 ('24.상~하반기 총 34건)

필요한 경우 타 기관과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개선과제 발굴에 동참하겠습니다.

## 4 맺음 말씀

공공기관은 여러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가스·수도·도로·철도·의료 등  
국민 생활의 최접점에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곧 정부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각 기관에서 추진해 온 혁신 사례들이 공유됨으로써  
국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경에 “행백리자 반구십(行百里者 半九十)”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 리를 가는 여정에서 구십 리를 간 뒤에도  
아직 반밖에 오지 않았다고 여기는 마음가짐으로,  
공공기관 혁신의 길이 완성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